

기해년, '활기찬 전북' 을 위해 힘차게 뛰겠습니다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전북도정 임할 것

▶ 송하진 전북도지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행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360만 출향 도민들에게도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합니다.

돌아보면, 2018년은 위기와 기회의 상존 속에 우리 전라북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발전의 계기를 모색해 온 한 해였습니다.

국내 경기가 침체하고 지역적으로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민생이 위축되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수 상용차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적극 마련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농생명산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으로 날개를 달았고, 혁신도시는 외부의 편견에도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한 우리 도정은 사상 최초로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전북경제의 체질 강화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도민 안전과 복지를 확대하고 전북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올 한해에는 지역경제의 혁신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신산업으로 지역 제조업의 활력을 회복하



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도민께 선사하겠습니다. 국제공항을 비롯한 SOC 확충과 내부개발 가속화 등 새만금의 괄목할 성장과 발전으로 더 많은 부의 토대를 창출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농업의 접목에 힘을 쏟아 농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드리겠습니다. 악취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등 도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을 누리고, 오늘에 대한 만족과 내일을 향한 기대를 품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세세한 곳까지 신경 쓰겠습니다.

무주세계태권도대회와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아태마스터스와 프레젠퍼리,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연이어 개최해 전북의 융성하는 기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도정과 도민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자세로 정성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해년 한 해가 우리 전북인의 자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대도약의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하는 우리 전북인은 반드시 대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깊은 사랑과 응원만큼 전북교육도 새롭게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든 시작은 참으로 떨립니다.

어떤 길이 펼쳐질까?

높은 산을 앞에 둔 산악인의 두근대는 심장도 그러하고

어떤 삶이 기다릴까?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눈빛도 그러하고

과연 잘 적응할까?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처음을 앞둔 모든 이의 설레는 마음 그대로 전북교육도 새롭게 나아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북 교육가족 학생 여러분,

늘 그랬듯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깊은 사랑과 응원만큼 전북

교육도 새롭게 빛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전북교육 가족 모두에게 새해에 넘치는 행운과 건강이 따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례시 지정으로 '담대한 전주시대' 열 것

▶ 김승수 전주시장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눈물과 한숨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365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전주는 2019년 새해를 담담하게 시작합니다.

전주보다 크고, 전주보다 인구가 많고, 전주보다 돈이 많은 도시는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전주만큼 '자기다움'을 간직한 도시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 임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줄곧 "전주를 전주답게"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시민들 곁에 다가가고, 가장 한국적인 문화도시로 세계적인 문화도시가 되기를 꿈꿔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는 사람과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회복력 있는 도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안으로는 도시재생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새해에는 드론, 탄소, 수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고,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과 일자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숲과 도서관과 미술관에서 놀 수 있도록 '야호 놀이터'를 만들고, 도시 곳곳을 문화로 재창조하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겠습니다.

천만그루 나무를 심어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복지를 펼쳐가겠습니다.

공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살리고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북돋우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도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실험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민·정권과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의 희망의 불씨를 전주가 살리겠습니다. 중추도시로서의 역할을 전주라는 두 어깨에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새해 아침입니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조금씩이라도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도민의 뜻 대변하는 '위민의정' 펼칠 것

▶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己亥年) '황금 돼지의 해'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7월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를 모토로 더 많은 전북 미래를 찾기 위해 민생 및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각종 현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았습니다.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분석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정, 열악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낙후지역을 배려한 재정분권추진 등 각종 건의·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호소하며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해법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2019년 새해에도 도민을 위해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의



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새 시대에 대비한 미래전략을 설계하고 집행부의 생산적인 동반자 관계로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기관으로서 책무에 충실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의 끈을 더욱 확고히 하겠

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쟁이 아닌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전북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위민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 '희망 군산' 이루는 길에

▶ 강임준 군산시장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황금돼지의 복된 기운 속에서 소망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이 군산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다면 기해년 새해는 그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시켜 시민들이 보다 나아진 삶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시장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시장 혁신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안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입안 단계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시민들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민중심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잘사는 군산'을 만드는 길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시민이 만드는 자립도시'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군산시민이 함께 나아가면 지금의 경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군산을 만들 수 있

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한다면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절전지훈(折箭之訓)의 마음으로 희망의 군산을 만들어 가는 그 길에, 30만 군산시민 모두가 동행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익산' 을 열겠다는 역사적 소명으로

▶ 정현을 익산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망의 2019년, 희망 가득한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를 맞아 더욱 화목하고 낙낙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018년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시는 시민의 성원과 지지를 원동력으로 시장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9년은 익산시가 이대로 지역의 중추도시로 머물 것인가, 대한민국을 선



도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 도시로 거듭날 것인가를 결정 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새 시대를 열겠다는 역사적 소명으로 익산의 번영과 대도약을 향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2019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